

그레초와
대림 시기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O Antiphons)

교황 프란치스코와 함께 성탄 구유 만들기



글 Michael Lasky 수사 (곤벤뚜알 작은형제회)
그림 Joseph Dorniak 수사 (곤벤뚜알 작은형제회)

머 리 말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그레초의 수사들은 12월 추위에 맞서 수도복을 단단히 여미고 저녁기도를 바치기 위해 동굴 같은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선창자 형제(Brother Draft)의 힘찬 인도로 하나된 목소리가 마치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음을 높이고 자신감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찬미가를 노래하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소식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찬양 노래, 루카 복음에 나오는 '마니피캣(Magnificat)'을 노래하는 수사들의 합창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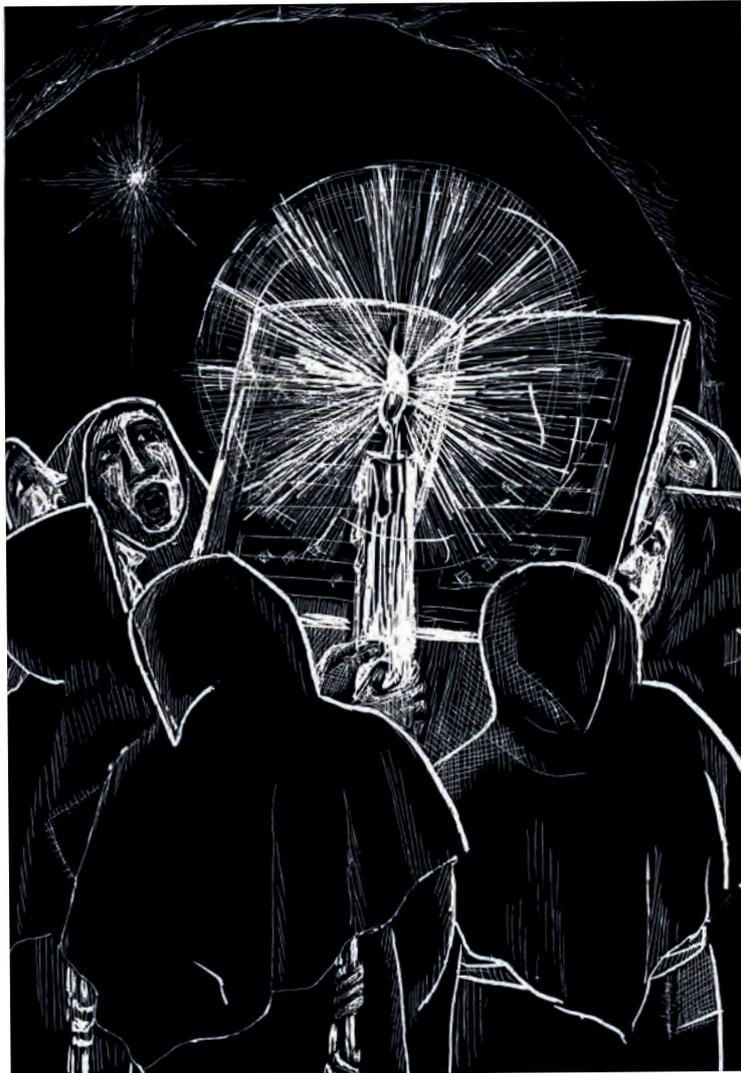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루카 1,46-55)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노래하는 성모의 노래 후렴(O Antiphons)은 구약 시대 이후 바닷가에서 산꼭대기까지, 회당에서 성당까지 울려 퍼졌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호칭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후렴 속에는 성탄 때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함으로써 새롭게 숨쉬는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혜이시며 이스라엘의 주님이시여,
하느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저희 안에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사이의 뿌리이며 다윗의 열쇠이시여,
저희를 하느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이 저희 안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밝아오는 새벽이며 만민들의 임금
이시여,
저희 마음에 불을 놓으시어 복음을
살고 선포하게 하소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이시여,
완전한 삼위일체와 하나된 일치의
친밀한 현존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
희를 이끄소서.

훗날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이 유머 감각을 발휘하여 6세기 수도자들이 작곡한 찬미가에서 예수님의 라틴어 호칭들[Emmanuel(임마누엘), Rex(임금), Oriens(새벽), Clavis(열쇠), Radix(뿌리), Adonai(주님), Sapientia(지혜)]의 첫 글자를 12월 23일부터 역순으로 배열하여 두 단어로 된 “ERO CRAS”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성탄 전야(Christmas Eve)를 가리키는 이 문장은 “내가 내일 온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 올지 모를 내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데 이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가는 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800년 전 그레초에서 성탄 구유를 생생하게 재연하여 대중화시킨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교황 교서 『놀라운 표징』에서 1223년 그레초를 회상하며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를 숙고합니다. 교황님은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탄 구유는 성경에서 울려 퍼지는 생생한 복음과도 같습니다. 성탄의



장면을 관상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시고자 사람이 되신 겸손하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영적 여정으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¹

이 자료는 그레초와 성모의 노래 후렴(O Antiphons)이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의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교회의 사회 교리를 어떻게 더 잘 실천에 옮길 수 있을지 더 깊이 성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침묵과 움직임, 노래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하느님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프란치스코의 “행동하는 기도”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인의 마음의 눈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처럼 소박한 표징으로 위대한 복음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금을 울려, 오늘날까지도 우리 신앙의 아름다움을 소박하게 되살리는 진정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첫 구유를 재연해 놓은 바로 이 장소는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복돋워 줍니다. 그레초는 침묵으로 둘러싸인 산중 요새,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왔습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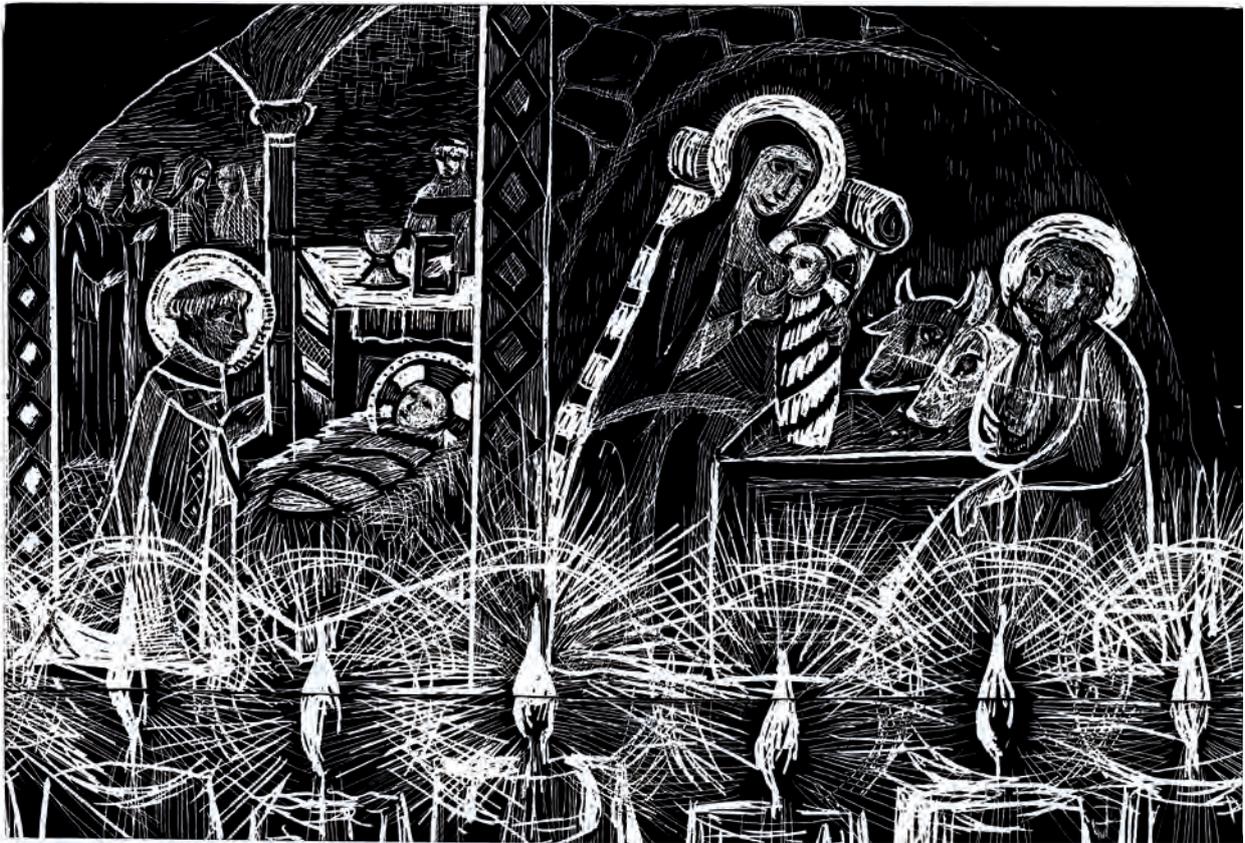
이 자료에서 소개하는 기도는 한부모 가정의 부엌에서 수도 공동체의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에 알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탄 구유의 설치, 예를 들어,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전통적인 “후렴(O Antiphons)”의 날에 하거나 대림 시기 가운데 어느 때나 7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교황 프란치스코의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성탄 구유 앞에서 우리는 구유가 완성되기를 애타게 고대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 준 이들에게서 받은 이 소중한 선물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게 해 줍니다. 또한 그 기억은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와 같은 기쁜 경험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켜 줍니다. 구유를 어떻게 꾸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수도, 해마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건네는 말입니다. 성탄 구유는 어디에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³

모든 기도는 그날의 찬미가로 시작하여 그레초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영감에 따라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혜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참석자들은 성탄 구유의 특정 부분을 배치하도록 초대되며, 이는 성탄 구유의 크기와 그 창의력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촛불을 켜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날에 첫 번째 초부터 켜고 마지막 날에 일곱 번째 초까지 켜십시오. 촛불은 여러분을 고요히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방금 한 일에서 영감을 얻은 희망으로 가득 찬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속에서 켤 수 있도록 이끕니다. 그 뒤, 촛불을 다시 켤 때 전날 부른 노래의 한 구절을 골라 다시 한번 부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창의력을 고무시키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신비를 오늘날 우리 세상 속으로 가져와 토론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찰을 위해 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한 구절이 제시됩니다.

특정한 마침 예식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청원기도(prayers of intercession)를 바치거나 마니피카트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머리말 참조). 성령께서는 커피나 차 또는 핫초코 한 잔으로 여러분을 변화로 이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해 더 깊이 대화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지혜이시여



O SAPIENTIA



지혜이시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우선, 성탄 구유의 배경은 밤의 침묵과 어둠 속에 별이 빛나는 하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에서 수차례 경험해 본 어두운 밤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들에도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삶의 의미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궁극적인 질문들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랑하는가? 나는 왜 고통받는가? 나는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시고자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어둠은 밝혀지고 고통의 그늘에 앉아 있는 수많은 이들은 길을 찾게 됩니다(루카 1,79 참조).⁴ **하느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이 제시되고, 그 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서 질문에 대한 밝게 빛나는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들과 길잡이 별은 우리도 동굴로 떠나 주님을 경배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성탄 구유에 천사와 별을 배치한다.

첫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지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씀이여,
 끝에서 끝까지 미치시며,
 권능과 자애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여,
 오시어 우리에게 현명의 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침묵과 주의 깊은 경청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조급하고 빠른 문자 메시지 소리로 바뀌면서 사려 깊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가 위협에 놓입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이 만들어져, 그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만을 만들고 통제 불가능하거나 즉각적이고도 피상적으로 파악 불가능한 것은 모두 배제시킵니다. 이러한 역학의 내재적 논리 때문에 우리를 **공동의 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차분한 성찰이 방해받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46]

오 이스라엘의 주님이시여



O ADONAI



이스라엘의 주님이시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1223년 12월 25일, 12월 25일에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형제 수사들이 그레치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의 농장 사람들도 이 거룩한 밤을 밝혀 줄 햇불과 꽃을 들고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도 이곳에 당도하여 건초더미가 가득 담긴 여물통과 황소와 나귀를 보았습니다. 이 성탄 구유 앞에 모인 모든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는 구유 앞에서 성찬례를 장엄하게 거행하여,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과 성찬례의 유대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레치오에는 조각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탄 구유를 재연하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레치오의 구유 동굴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데 있어** 본래의 사건과 그 신비에 동참하는 일들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간극도 없습니다.⁵

성탄 구유에 건초와 동물들을 배치한다.

둘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주님, 이스라엘 집안을 다스리시는 이여,
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시나이산에서 그에게 당신 법을 주셨으니,
오소서, 팔을 펴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통합 생태론이 수학과 생물학의 언어를 초월하는 범주에 대한 개방성을 요청하고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을 찬미하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성인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시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분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유대로 자신과 결합된 누이였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찬미받으소서, 11]

오 이사이의 뿌리여



O RADIX JESSE



이사이의 뿌리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우리는 흔히 성탄 구유에 많은 상징적 모형들도 덧붙이곤 합니다. 그러한 모형들로는 무엇보다도 걸인들 그리고 마음의 풍요로움만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아기 예수님께 다가갈 온전한 권리를 지닙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가난한 이들을 구유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구유에서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온전히 구유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참으로 이 신비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흔히 그들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탄 구유에 있는 가난하고 순박한 이들은,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들 그리고 가까이 와 주십사 청하는 이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마태 11,29)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실천하게 가르치시고자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소박하게 사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구유에서 탄생하심으로써, 상속받지 못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과 존엄을 줄 수 있는 유일하고 참다운 혁명을 몸소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혁명, 자비의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유에서 온유하지만 힘차게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의 필요성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아무도 소외되거나 배척받지 않는 더욱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⁶

성탄 구유에 가난한 이들과 마을 사람들의 상을 배치한다.

셋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이사이의 뿌리여,
만민의 표징이 되셨나이다.
주 앞에 임금이 잠잠하고, 백성들은 간구하오리니,
더디 마옵시고 어서 오시어 우리를 구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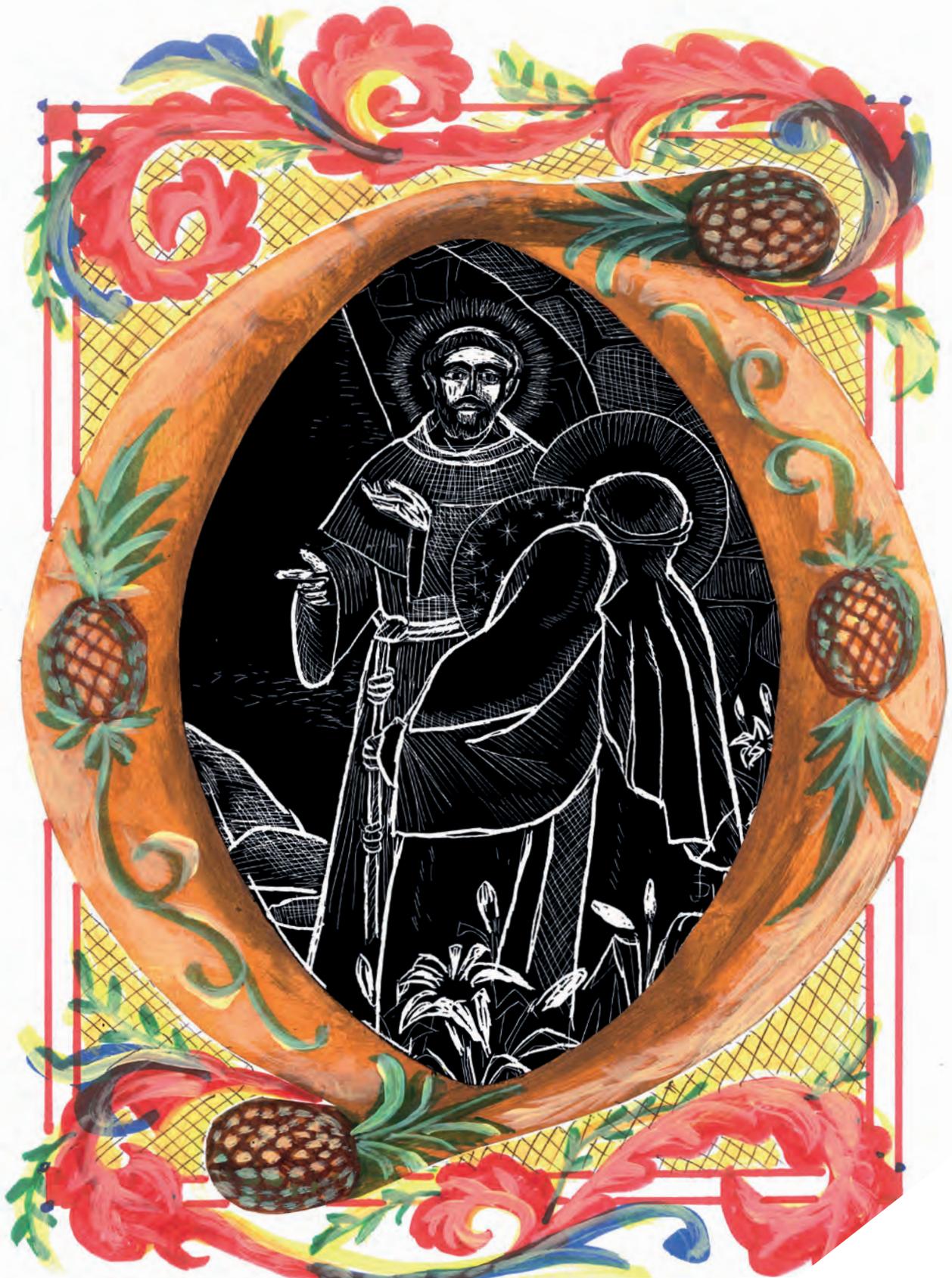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저는 모든 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재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 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교황 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55]

오 다윗의 열쇠여



O CLAVIS DAVID



다윗의 열쇠어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점점 동굴로 다가가다 보면,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 상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찾아온 모든 이에게 그 아기를 보여 주는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 상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에 이 젊은 여인을 에워싼 그 위대한 신비를 묵상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 예고하는 천사의 메시지에 온전히 순종하며 응답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의 응답은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법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줍니다. 마리아 곁에는 아기와 그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요셉 성인**이 서 있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헤로데의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그는 지체 없이 이집트로 피신하였습니다(마태 2,13-15 참조). 그리고 위험이 지나가자,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자렛에서 요셉은 소년 예수님 그리고 청년 예수님의 첫 스승이 되었습니다.⁷

성탄 구유에 마리아와 요셉 상을 배치한다.

넷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다윗의 열쇠어**, 이스라엘 집안의 홀이시여,
주께서 여시면 닫지 못하고, 닫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하오니,
오시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를 그 결박에서 풀어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 성인을 박해받는 용감한 이민자(이주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태오 복음사가가 성인을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 생애의 특별한 이 사건은 전통적으로 “이집트로의 피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태 2,13-23 참조). 나자렛에 살던 가족은 이러한 굴욕을 겪었고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위험과 두려움, 아픔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똑 같은 불의와 고통을 겪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대부분 늘 힘있는 자들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피난길에 오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통해 오늘날의 이민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 봅시다. 오늘날 이민(이주)은 우리가 눈 감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 요셉에 대한 교리 교육 - 5]

오 떠오르는 새벽이여



O ORIENS



떠오르는 새벽이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거행되는 성탄 새벽 미사에서 우리는 다음의 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베들레헬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루카 2,15). 천사의 예고를 들은 목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가르침이 이 단순한 말에서 나옵니다. 온갖 다양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다른 많은 이들과는 달리 목자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 곧 구원의 선물에 대한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이들이야말로 강생 사건을 반길 줄 압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느님에 대한 응답으로, 목자들은 그분을 만나 사랑과 감사와 경외를 바치러 길을 나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 자녀들을 만나셨습니다. 바로 이 만남으로 우리 신앙이 생겨나고, 성탄 구유를 통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 탁월한 아름다움이 빛어집니다.⁸

성탄 구유에 목자(Shepherd)의 상을 배치한다.

다섯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동녘에 떠오르는 영원한 빛,
찬란한 광채, 정의의 태양이시여,
오시어 어둠과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어 주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교회가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이끄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별이신] 예수님과 이루는 친교는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친교와 선교는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승을 충실하게 본받으려는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에게, 모든 장소에서, 온갖 기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베들레헬의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루카 2,10).’ 이 실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착한 목자의 눈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3 & 125]

오 만민의 임금이사여



O REX GENTIUM



만민의 임금이시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뵈고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 값비싼 예물은 우의적 의미를 지닙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직을, 유향은 그분의 신성을, 몰약은 돌아가시어 무덤에 묻히시게 된 그분의 거룩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나긴 여정을 거쳐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부유한 현자인 그들은 저 멀리서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길고 험난한 길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마태 2,1-12 참조). 그들은 아기 임금님 앞에서 더없이 기뻐합니다. 초라한 주위 환경을 개의치 않고 즉시 땅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엎드린 동방 박사들은, 통치자의 지혜로 별들의 행로를 인도하신 하느님께서 역사의 행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곧, 하느님께서서는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십니다.**⁹

성탄 구유에 세 명의 동방 박사 상을 배치한다.

여섯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만민의 임금이시여, 모든 이가 갈망하는 이여,
두 벽을 맞붙이는 모퉁이 돌이시니, 오시어, 흠으로 몸소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소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교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은 문화, 사회, 정치 또는 철학의 범주 이전에 신학의 범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느님의 이러한 선호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간직하도록 부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가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198]

오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시여



O EMMANUEL



우리와 함께 하느님이시여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레초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 상을 구유 안에 모실 때에, 불현듯이 성탄의 장면이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하느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우리 품에 안기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당신 권능을 연약함과 나약함 이면에 숨기십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이를 향해 양팔을 활짝 벌려 웃으시며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은 우리 앞에 생명의 위대한 신비를 보여줌으로써 기쁨과 경탄을 자아냅니다.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젊은 부부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 삶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놀랍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여느 어린아이처럼 자고 모유를 먹고 울고 놀았습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끊임없이 하시는 가능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탄 구유는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또한 이 구유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 삶에 동참하게 되었는지 묵상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얻고자 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초대를 받습니다.¹⁰

성탄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모신다.

일곱째 초를 켜고 노래한다

오, 임마누엘이여

우리의 임금이시요 입법자시며 만민이 갈망하는 이요 구속자시니,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 천주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이여, 임마누엘이 오시리로다.



오늘날 성탄 살아가기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기쁨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로 나서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3]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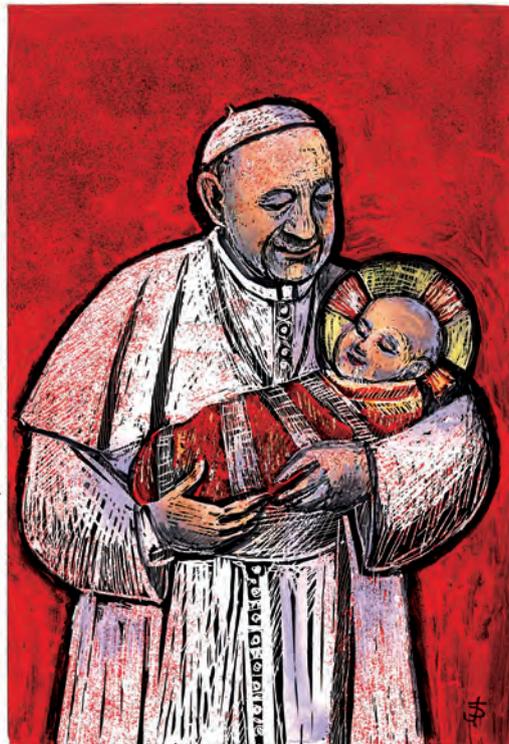
800년 전, 성 프란치스코는 그레초 사람들을 주님 탄생의 생생한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으로 주님 탄생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펼쳐지는 이야기의 일부로 삼아,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되신 하느님을 찬미하며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아기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을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의 성탄 구유는 우리 집에서 “성경의 책장 속에서 튀어나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복음”과 같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요셉은 여전히 서툴게 칠한 수염을 가지고 있고 마리아는 계속 요람 옆에 무릎을 꿇고 선명한 붉은 입술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저는 그 구유에서 누가 빠졌는지도 기억합니다. 모든 성탄 캐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인 북치는 소년(the little drummer boy)이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¹¹

그래서 집이 고요해지면, 저는 성탄 트리의 반짝이는 불빛 아래 구유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복을 치며 주님께 노래를 불러 드렸습니다. “Come they told me, pa-rum-pum-pum-pum...” “대림 시기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O Antiphons)”에 대해 듣기도 전에 그 노래가 제 “드럼”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모의 노래 후렴(O Antiphons)”이 여러분의 성탄 전통의 일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 오소서, 오 오소서(O Come, O Come...)”라는 노래로 아기 예수님을 달래며 안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ERO CRAS, 내일 내가 온다.”라고 속삭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미주

- 1 교황 프란치스코, 『놀라운 표징(Admirabile signum)』, 1.
- 2 같은 책, 3.
- 3 같은 책, 10.
- 4 교황 프란치스코, 『놀라운 표징』, 4.
- 5 같은 책, 2.
- 6 같은 책, 6.
- 7 같은 책, 7.
- 8 같은 책, 5.
- 9 같은 책, 9.
- 10 같은 책, 8.
- 11 Katherine Kennicott Davis 가 작곡한 “The Carol of the Drum” (1941)으로 “Little Drummer Boy(북치는 소년)”(1957)로 제목이 변경되었다.

알림

이 자료의 본문과 미주에 언급된 모든 교황 프란치스코의 글은 교황청 홍보처 - 바티칸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글쓰기와 그림 작가 소개

마이클 라스키(Michael Lasky) 수사는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소속 수도자이며, 현재 이탈리아 로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정의, 평화, 창조보전을 위한 총장 대리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선에서 동료 수사들과 함께 사회 정의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의 사회 교리, 특별히 프란치스칸 영성과 그 학문적 전통에 초점을 맞춘 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에서 “International Franciscans” 소속으로도 활동했으며, 지금은 “Franciscan Action Network”의 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마이클 수사는 2019년 메릴랜드 주 엘리코트 시티(Ellicott City)에 “Little Portion Farm(포르치운쿨라 농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FranciscanVoice.org의 책임자도 맡고 있다.

조셉 도니아크(Joseph Dorniak) 수사는 1969년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하여 1979년 사제품을 받았다. 그는 주로 미국 동부 지역의 본당에서 사목 활동을 했으며,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얼마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조셉 수사는 가나, 자메이카, 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도 사도직을 수행했다. 그는 모든 사도직 활동에서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그의 작품을 통해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 조셉 수사는 현재 플로리다 주 보인턴 비치(Boynton Beach)에 자리한 성 마르코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다. 이 자료에 실린 그레초에 관한 삽화들은 모든 그가 그린 작품이다.